

★ EBS연계 중요 작품(이용악) ★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샅샅이 짚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선달 그믐
 밤이
 알뜰한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귀머리 함
 걸어온 길가에 짙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짊어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희상
(성찰)

철없는 누이 고수머털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니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 줄음줄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여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수원 마음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 외.가.의 대비
 부두에 호젓 선 나는 ㉠ 땃비들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겨울. 거니감

한글에 대해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꺾인다
 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

* 아롱범 : 표범.
 ** 마우재 말 : 러시아 말.

(나) 의인화
 ㉣ 내 유년 시절 ㉤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
 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를 깎
 아주시곤 하였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소리, 어머니조차 무
 서워요. 애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내가 크면 너
 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자정
 지나 앞마당에 ㉥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렸다. 처마 밑
 시래기 한줌 부스러짐으로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 사
 위어가는 호롱불 주위로 방안 가득 폴폴 수습 장 입김이 날리
 던 밤,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 기형도, 「바람의 집-겨울 판화1」 -

(다) 외.연계
 남산(南山)에 많던 술이 어디로 가단 말고
 난 후(亂後) 도끼가 그대도록 날뻐시고
 두어라 우로(雨露) 곧 깊으면 다시 불까 하노라 백귀에 대한 희망.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 제비 나니
 적객(謫客)의 회포는 무슨 일로 그지없어 귀양살이 한한
 저 제비 나는 걸 보고 한숨 겨워 하나니 시름.

적객(謫客)에 벗이 없어 빈 들보에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실 하는작고
 어즈버 내 품은 시름은 너보다도 많노라

㉧ 인간(人間)에 유정(有情)한 벗은 명월(明月)밖에 또 있는가
 천리(千里)를 머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외로움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외.연계 → 충
 설월(雪月)의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잤았나니 향기로다 "충"
 어즈버 호접(胡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을까 하노라

아름

- 이신의, 「단가(短歌)」 -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가)와 (나)는 과거의 기억을 환기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고향에 대한 기억, 유년시절.
 - ㉡ (가)와 (다)는 향토적 정감이 풍부한 시어를 구사하고 있다.
 - ㉢ (나)와 (다)는 자연물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 (가)~(다)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가)~(다)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한 갈등이 드러나 있다. X

- 3번 5번선리만 판만 → 처음보는시라면
동어부터 바꿀것!
14. (가)의 시어와 시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화자는 자신을 '아롱범'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당당함을 드러내고 있다.
 - ㉡ '어머니의 입김'은 화자의 추억과 연결되어 포근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 화자의 처지를 '등대'와 연결하여 '가도오도'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 '어슴푸레 그리어진'은 화자의 추억이 희미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X
 - ㉤ '얼음이 두껍다'는 화자가 지닌 신념의 강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X

1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년기를 다룬 기형도의 시에서 아버지는 늘 부재해 있다. 현실의 울타리로서의 부성의 부재는 불안, 공포의 정서로 연결된다. 어머니는 모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형상화된다. 부성의 부재, 불완전한 모성은 결국 기형도의 작품에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운다. ⊖

- ① '무서워요'는 화자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어머니조차 무서워요'에서 불완전한 모성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내 속에서 울리는 소리'인 바람은 화자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상징한다.
- ④ '중잇장 같은 내 배'를 끌어내리는 행위를 통해 상실된 부성이 회복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시래기 한줌 부스러짐', '사위어가는 호롱불'은 죽음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그리침
가 다.

1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은 화자의 소망을, ㉡은 화자의 시름을 환기한다.
- ② ㉠은 화자의 과거를, ㉡은 화자의 현재를 상징한다.
- ③ ㉠과 ㉡은 모두 정겨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표상한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의 심리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다)의 '술', '명월', '매화'의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시가에서 자연물은 관습적 상징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 선비들은 이러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었다. (다)는 작가가 인목대비 폐위를 반대하다 함경도로 유배된 상황에서 지어졌는데, 이 시의 자연물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① '술'은 남산에 있다 배어진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조정에서 쫓겨나 유배를 간 작가를 상징하는 것 같아.
- ② 술은 '우로'가 깊어질 때 다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어.
- ③ '명월'은 화자를 '천리를 머다 아녀 따라오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벗으로서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
- ④ '매화'는 여원 모습으로 꽃을 피운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유배 생활 중 작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 ⑤ '매화'에는 '향기'가 깊이 배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간직하고 있는 지조를 나타내는 것 같아.

1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① ㉠ a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배경을 표현하고 있다. **필연적역원!**
- ② ㉠ b : 유사한 구조의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나 ③ ㉠ c : 대립적 시어를 병치하여 상황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주의인원!**
- ④ ㉠ d :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속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필연적역원!**
- 다 ⑤ ㉠ e :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